



부산상공회의소

보도자료

【보도일시】

2024년 8월 20일(화) 14:00 이후

담당 : 경제정책본부 석지만 팀장
(990-7042)

부산상의 맑은 물 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

맑은 물 공급사업 본격 추진 위한 썬크탱크 출범

- ▶ 부산상의 TF에 유관기관, 지역기업, 학계, 의료계,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참여
- ▶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관련 전문가 용역 발주
- ▶ 양재생 회장, 맑은 물 공급 통한 정주여건 개선..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끊는 촉매제

부산상공회의소(회장 양재생)는 20일(화) 14시,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맑은 물 TF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TF 회의는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 이후 양재생 회장이 부산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맑은 물 공급 사업을 5대 핵심 현안과제에 포함시키고,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관련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개최하였다. 향후 부산상의는 TF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, 관련 전문가 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.

맑은 물 TF는 외부 위원으로 부산시 물 산업협회를 포함한 부산시 소재 물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소, 지역기업, 학계, 의료계,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.

오늘 회의는 첫 구성 회의인 만큼 TF 구성 취지 및 정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에 대한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‘부산지역 맑은 물 공급 방안’이라는 주제로 참여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회의에서 TF 위원들은 부산 식수문제의 심각성을 비롯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 특별법 제발의, 취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부산의 맑은 물 공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.

또한 향후 맑은 물 공급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등 맑은 물 TF의 운영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.

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좋은 물을 먹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부산이 맑은 물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면 청년층을 비롯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” 이라면서, “향후 TF 운영을 통해 경남지역 주민들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” 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.